

 KIND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	보도자료	
	배포일시	2019. 11. 18.(월)
담당부서	담당자	
KIND 전략기획본부	• 사업전략실 실장 고준석 • ☎ (02) 6746-7351	
보도일시	2019년 11월 18일(금) [배포 이후 보도가능]	

**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, 내년 타당성조사
지원사업 설명회 및 중소·중견기업 상담회 개최**



-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, 사장 허경구)는 18일 오늘, Two IFC(서울 여의도)에서 내년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설명회와 중소·중견기업 상담회를 개최하였다.
- KIND는 작년 6월 설립된 이후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지원이라는 기관의 정체성을 바탕으로, 해외사업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직원들의 역량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에서 운영하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올해 2월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, 수탁 첫해 총 16건 지원이라는 역대 최대 지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.
- 이번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설명회는 KIND가 위탁운영을 시작하고 처음 가지는 설명회로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사업주로서, 용역사로서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의 저변을 넓히고, 궁극적으로 양질의 사업에 대해 용역의 품질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. 기관 및 '20년 지원방향 소개, 사업주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, 용역사 입찰방법 및 선정방법, 중소·중견기업 지원제도 및 사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질의응답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개진도 활발히 이루어졌다.
-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160여명의 투자자와 용역사에서 참석하여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, 이어서 진행된 중소중견기업 상담회에서도 60여명이 참석하여 25여건의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다. 특히 현재 내년도 상반기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대상사업을 모집하는 기간으로서, 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건설사들과 추후 용역수행에 관심있는 기업/기관들이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.
- KIND는 이날 설명회에서 접수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기업들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.
- 현재 「2020년 제1차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」이 모집중에 있으며 접수마감은 이번달 29일까지이다. 자세한 사항은 KIND 홈페이지(kindkorea.or.kr)를 참조하면 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업총괄실 서영민(☎ 02-6746-73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